

◆ 마음 열고 | 찬양과 나눔

- 겸손히 주를 섬길 때(찬송 212장, 구 347장)
-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웃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과 탐욕으로 넘보지 말아야 할 일을 욕심냈을 때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이미 충분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도 더 많은 것을 제 뜻대로 휘두르려 한 교만이 그를 절망으로 몰아잡니다. 교만한 자는 살아서도 죽은 자처럼 수치를 당하고 죽어서도 명예롭지 않은 인물로 영원히 기억됩니다.

◆ 마음 다해 | 말씀과 나눔

1. 웃시야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1-15절).

- 1) 웃시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5절)
- 2) 하나님이 웃시야에게 주신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6-10절)

나눔 1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복을 주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복이 무엇인지 서로 나눠 봅시다.

2. 웃시야의 교만이 웃시야를 망가뜨립니다(16-23절).

- 1) 제사장도 아닌 웃시야가 성전에서 분향하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6절)
- 2) 제사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분향하려 한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19절)

3) 웃시아의 시신이 역대 왕들의 묘실에 안치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23절)

나눔 2 웃시아는 정치적으로 힘이 생기자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 들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주신 한계를 넘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태도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교만은 무엇이며, 교만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눔 3 웃시아는 나병 때문에 살아서도 왕궁에 거할 수 없었고,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서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잠 16:18). 교만 때문에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 마음 모아 | 함께 기도

삶 _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소서.

공동체 _ 교만과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 영광을 놓치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소서.

*본 소그룹 나눔지의 내용은 매일 성경의 그룹 큐티 나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1.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2. 인자의 말씀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3.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4.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소서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갈 길에 인도하여 주시니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와 함께 살 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 멘